

호남·총리' 출신 '잠룡' 정세균 vs 이낙연... '텃밭' 표심 주목



함께 이겨냅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총리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대권 가도에서 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맞서 호남 출신 이낙연·정세균 두 전 총리의 경쟁구도가 본격화돼 호남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 1강 이재명 맞설 주자 '관심'... 맞대결 불가피
이낙연, 지지율 하강곡선· 정세균, 5%↓ 한계 탈출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을 완결할 수 있는 일이며 민주주의와 희망찬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지도도 밀알이 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 전 총리의 적극적 대권 행보에 따라 같은 '총리· 호남 출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호남에서의 맞대결이 불가피해졌다.

6선의 정 전 총리는 전북 전안 출신에 제46대 국무총리, 5선의 이 전 대표는 전남 영광 출신에 제45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두 사람은 호남 출신에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지만, 기업인,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적 역경은 결이 좀

다르다.

2명 모두 DJ(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정계에 입문했지만,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 갈리는 과정에서 한때 다른 길을 걷기도 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합당 이후 '한술밥'을 먹고

있다.

정 전 총리가 정책통으로 당내 자기 기반을 만들어 'SK계'를 일꾼 반면, 이 전 대표는 개인적 역량으로 정치경력을 쌓고 한때 '순학계'로 분류됐지만, 당의 분열과정에서 호남을 지키며 문재인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해 총리 자리에 올랐다.

호남에서만 이낙연-이재명간 양강 구도였던 것이 정 전 총리의 가세로 지지율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 대권주자 중 이재명 지사가 1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율이 하강곡선, 정세균 전 총리는 지지율 5%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자성과 함께, 전국을 '잠행' 하고 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을 방문했지만, 언론노출을 자제하며 여론 청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5월8일 광주에서 '신복지2030광주포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전 총리는 오는 29일까지 2박3일간 광주와 전남, 전북을 오가며 '총리'가 아닌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다각도로 알리고 있다. 29일에는

전남 화순에 있는 함암면역치료제 개발기업 박셀바이오를 방문해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전문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을 놓고 호남민의 고민의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호남연고나, 대선 본선 경쟁력이나' 호남민의 전략적 선택이 있을지, 또 1강 이재명 지사에 맞서 두 후보간 막판 후보 단일화 여부도 관련 포인트다.

이른바 '문심(문재인대통령 마음)'과 '친문', 동교계동, 호남연 등의 선택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내 대선주자 중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빠지는 양상이고,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율은 5%이하이다"면서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지지율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정부 "文대통령 5인 만찬, 사적모임 아냐"...기업 회식엔 선 그어 '혼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만찬을 가진 것을 놓고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식사를 겸한 회의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기업의 회식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등 다소 애매모호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의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협상 관련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목적의 모임은 사적모임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부서관 등 4명과 만찬을 가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할라는 민원이 국민 신문에 제기되기도 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6일 중수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서면 질의한 바 있다.

손 반장은 다만 민간 기업에서 업무 논의 차 회식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게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허용범위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세대 교체한 호남정치권 민주당 지도부 입성하나

오늘까지 온라인 투표 진행
호남 단일 서삼석 당선 촉망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투표를 28일 시작한 가운데 호남 정치권의 지도부 입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대·세력 교체를 이룬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서 '호남 정치력 복원'을 주장하며 최고위원에 출마한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자력으로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이날부터 29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거는 강제 ARS 투표가 이어지며, 선거 당일인 내달 2일에는 미투표자가 전화를 거는 자발적 ARS 투표를 한다. 재외국민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는 29~30일 이틀 간 실시한다. 선거인 수는 71만4644명으로, 전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제주 합동연설회가 지난 2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대의원이 1만5905명, 권리당원이 69만4559명이다.

투표 비율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중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호남지역이 전체 40%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호남민의 표심 향방이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기호순) 당대표 후보의 지역간 대결구도는 뚜렷하지 않지만, 최고

위원 선거에는 지역 표심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부영이 모인' 멤버로 친문인 재선 강병원 의원과 호남 단일후보 재선 서삼석 의원, '처럼회' 멤버인 초선 김용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재선 백혜련 의원, 이낙연계 3선 전혜숙 의원, 성북구청장 출신 초선 김영배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마했다.

최고위원 당선권은 5명이며, 여성후보가 당선권에 들지 못할 경우 여성 다득표자가 5위 후보자 대신 당선된

다.

지역 정치권은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서삼석 의원을 호남 대표 주자로 내세운 만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이 호남이라는 점에서도 호남정치력 복원을 기대하는 당원들의 표심이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초선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이 여성 몫이 아닌 자력으로 호남 유일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호남권 단일후보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서 의원도 '호남정치 강관'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4년 전 '녹색대풍'의 주역이었던 6선 중진등 민생당 의원들이 모두 낙마하며 민주당이 18석을 석권했다. 국회에 입성한 18명 중 13명이 초선으로 세력과 세대 교체가 동시에 이뤄졌다.

민주당 전남도당 한 관계자는 "지역 구 국회의원 상당수가 초선으로 중앙정치무대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 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